

김윤기 문유이 선교사 선교편지 (2023.5.26. #2)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궁혁 목사님과 모든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선교지 베트남은 올해 유독 더웠던 건기가 지나가고 이제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방과후학교 사역이 진행 중인 달라이, 라우교회와 건축했던 여러 협력교회에서도 늘 우리 성암교회 당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사역’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적잖은 어린이들이 교회학교에 등록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동나이성 노회 몇 교회에서 방과후학교 사역을 요청해 왔습니다. 상반기에는 호치민에서 53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바우까 교회 방과후학교(한국어, 영어, 수학) 개설을 위해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바우까 교회는 공단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여러 소수민족 노동자들과 고아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2021년 베트남 교육부에서는 ‘한국어를 공교육 과정 필수외국어(7개외국어) 과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베트남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어 또는 중국어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는 환경 속에서 졸업하는 우리 사범대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임무가 막중해졌다고 봅니다. 이제 6월에 졸업하여 각 학교로 발령 대기 중인 학생들을 보니 “한 학생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여 보냈으면(파송)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제 3/4분기는 각 교회 여름행사(성경학교, 수련회 등)가 있어서 함께 참석하고 협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달라이 교회는 상반기부터 함께 기획하고 준비한 어린이 초청잔치(100여명 예상)가 6월 첫 주일(4일)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분기 선교보고는 영상을 제작하여 보냅니다.

** 기도제목

1.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한 제약이 더 구체화 되는 종교법이 발령되었습니다. 소수민족 마을, 캠퍼스에서의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2. 금,토,주일 4개 교회(달라이, 라우, 룡런, 바우까-400km)사역이 있습니다. 이동 시 그리고 현지 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3. 방과후학교(3개교회) 사역을 통해서 ‘교육 빈곤’에 처한 소수민족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4.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지역 어린이들이 교회학교에 잘 인도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5. 졸업하여 각 학교로 발령 대기 중인 한국어학과 학생들, 취업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가득하도록
6. 선교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